

# 온라인상의 논문 심사 과정

국립암센터

이 인 구

## 요 약

2003년부터는 논문 접수 뿐만 아니라 논문 심사도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게 구현될 것이다. 이에 논문 투고자, 사독위원(심사위원)들 모두 변화될 논문 심사과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강좌는 바뀌게 될 논문 심사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한 가정의학회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 서 론

현재 국내 의학계에서 온라인상에서 논문 접수를 하는 곳은 예방의학회 등 몇 군데 안 된다. 또한 논문 심사의 전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하는 학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가정의학회에서는 논문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는 논문 접수뿐만 아니라 논문 심사도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게 하려고 준비중이다. 이에 본 간행위원회에서는 절차상 매우 큰 변화가 생기므로 논문 투고자와 사독위원들에게 큰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여 본 강좌를 마련하였다. 특히 논문 심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독위원들은 변화될 논문 심사의 흐름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이에 현재 오프 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논문 심사과정과 비교하여 온라인 상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 본 론

### 1. 논문 투고규정상 변화된 점

1) 저자 체크리스트도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 보낸다.

2) 원고의 종류는 MS 워드를 권장한다. 그 이유는 워드로 쓴 원고는 온라인상에서 바로 원고 수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당분간 한글 97, 한글 2002 프로그램을 써도 괜찮다.

3) 책임저자와 교신저자의 명칭에 혼란이 우려되어 용어를 통일하기로 하였다. 즉 교신저자와 책임저자는 본 학회에서는 같은 것으로 본다. 교신저자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저자가 교신저자가 되고, 교신저자가 따로 명시되면 그 사람이 교신저자가 된다.

4) 온라인 접수 이외에 우편접수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되도록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 2. 온라인 논문 접수 및 심사 과정

1) 가정의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논문 접수 및 심사' 창에 들어가 '논문접수' 화면을 연다. 해당 과일을 첨부하여 '투고' 아이콘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며 교신저자의 이메일로 접수번호를 부여받는다.

2)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가정의학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논문접수 및 심사' → '논문 심사현황'란에서 접수번호와 교신저자명을 입력하면 논문심사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3) 간행위원회 담당 학회 직원은 논문이 접수되면 이를 간행위원장에게 알린다.

4) 간행위원장은 각 논문의 책임 간행위원을 정한다.

5) 책임 간행위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논문의 사독위원 또는 간행위원 2인을 선정한다.

6) 선정된 사독위원 또는 간행위원은 '논문접수 및 심사' → '논문심사'란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심사할 논문을 확인한다.

7) 1차심사를 완료한 사독위원 또는 간행위원은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낸다.

8) 2인의 사독위원 또는 간행위원이 1차심사한 논문에 대해 간행위원회에서 심의한다.

9) 논문 접수자에게 심의한 결과를 온라인 상에서 통지하면 책임저자는 원고를 수정하여 다시 온라인으로 파일을 보낸다.

10) 심사 종료가 안되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2차, 3차 심사로 넘어가게 된다.

11) 심사 종료가 게재 가능으로 나면 최종 결정은 간행위원회에서 내린다.

12) 게재 가능으로 최종 결정된 논문은 영문교정

을 한다.

13) 영문교정을 끝내면 게재예정 단계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된다.

## 결 론

온라인 상에서 논문 접수와 논문 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 긍정적인 점들이 예상된다. 첫째, 논문 접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기존에 우편 배달을 통한 시간 지연이 없어지고, 정확하게 논문이 접수될 것이다.

둘째, 논문 심사 과정이 단축되어 기존에 평균 1~2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해 매우 단축될 것이다.

셋째, 논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논문심사과정은 가정의학회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기능 개선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